

바깥놀이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 양상 및 관련 변인 분석

Aspects of Children's Rough-and-Tumble Play during the Outdoor Play and Effects of Gender and Social Competence

김영아 · 신혜영*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 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Kim, Young Ah · Shin, Hae Young*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 Dept. of Child Studies & Education, Hanyang Cyber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s rough-and-tumble play, and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rough-and-tumble play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and social competence. The subjects were 80 five to six year-old children. The children's behaviors during the outdoor play were observed by a modified version based on the Rough-and-Tumble Play Categories(Humphreys & Smith, 1987).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as measured by using the Scale of the Social Competence of Kindergarten(Doh, 1994).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COV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about 25.6% of outdoor play types was rough-and-tumble play behaviors. Specifically, children's rough-and-tumble play was more 'chasing' behaviors than 'mock-fighting' behaviors. Secondly, boys involved in rough-and-tumble play more often than girls did. In general, boys participated more frequently in various rough-and-tumble play categories, whereas girls involved only in chasing behavior more often. Finally, controlled by sex, children with higher social competence participated more frequently in rough-and-tumble play, which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In conclusion, children's rough-and-tumble play behaviors were related to the gender and the social competence.

Key Words : children's rough-and-tumble play, gender, social competence

I. 서론

놀이는 유아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유아들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일 뿐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이다(Isenberg & Quisenberry, 1998). 유아는 놀이를 통해 사회를 경험하고 성장해 간다. 유아기 놀이는 환경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 유아 발달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아가 다양한 놀이를 통해 그들만의 방식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발달해 간다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한다(이시자, 임명희, 1998).

유아는 많은 시간을 다양한 놀이로 보내며, 유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즐기는 놀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놀이도 있다. 그런 놀이들

중 하나가 바로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다. Groos(1901)에 의해 최초로 싸움놀이(Play fighting)로 언급된 이래 거친 신체 놀이는 1970년대까지 연구자들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이정숙, 2002, 재인용). 실제로 거친 신체 놀이는 유아 발달에 있어 그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왜냐하면 거친 신체 놀이의 외현적 특성 즉 발로 차고, 때리고, 쫓아다니는 등의 행동이 공격적 행동과 유사하므로 학자들은 이를 공격적 행동 범주에 포함시켜 연구해 왔다(Ladd, 1983; Pellegrini, 1989). 게다가 거친 신체 놀이는 다른 놀이와 비교해 볼 때 범주화가 어렵고(Pellegrini, 1987), 조직화되지 못한 활동(Humphreys & Smith, 1984)으로 인식되는 등 부정적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다.

그러나 거친 신체 놀이는 공격적 행동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현적 행동 및 구조 그리

* Corresponding author: Shin, Hae Young
Tel: 82-2-2290-2856, Fax: 82-2-2290-2828
E-mail: shin70@unitel.co.kr

고 생태학적 측면에서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Pellegrini, 1989). 행동적 측면에서 거친 신체 놀이는 유아들이 웃고 즐기는 표정으로 함께 텁굴고 씨름을 하며, 주먹을 움켜쥐기 보다는 손을 편 상태로 서로 치고 밟게 된다. 반면, 공격적 행동은 얼굴이 분노나 불쾌감으로 일그러지고 상대를 움켜잡은 채 주먹을 쥐고 서로 때림으로써 적의를 표현한다.

구조적 측면에서 거친 신체 놀이는 유아 혼자의 일방적 행동이 아닌 상호간의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놀이 진행을 위해 놀이 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제휴와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지 기능이 요구된다. 그리고 공격자와 방어자의 역할이 서로 자연스럽게 교체되면서 놀이를 저해하는 극단의 행위를 스스로 제어하게 된다. 이에 비해 공격적 행동은 힘의 우위에 의해 흔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며, 그들의 행위는 점점 난폭해지고 억제되지 않는다. 또한 공격적 행동 이후 유아들은 함께 머물러 있지 않는다.

생태학적 측면에서도 두 행동 간의 서로 다른 특징들이 존재한다. 거친 신체 놀이는 지나치게 춥거나 덥지 않은 시기에 흙과 잔디 혹은 모래와 같은 부드러운 지면이 있는 공간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공격적 행위는 계절과 장소에 관계없이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흔히 나타난다. 또한, 거친 신체 놀이는 다른 유형의 사회적인 놀이와 마찬가지로 만 5세경 가장 빈번히 행해지며, 그 이후 감소하는 역 U자 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공격적 행동은 유아기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거친 신체 놀이와 공격적 행동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1980년대 와서야 거친 신체 놀이를 공격적 행동의 범주에서 분리하여 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특히 거친 신체 놀이와 실제 싸움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거친 신체 놀이의 긍정적 측면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에 근거를 둔 일부 학자들(Humphreys & Smith, 1984, 1987; Pellegrini, 1988, 1989)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거친 신체 놀이가 유아 발달의 다양한 측면 즉 신체, 사회·정서, 문제해결력 및 창의적 사고력에 유용한 가치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현재까지 수행된 거친 신체 놀이에 관한 연구들은 거친 신체 놀이와 기타 행동을 구분하는 기준, 거친 신체 놀이의 참여 양상, 거친 신체 놀이에서의 성차, 유아 발달과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의 예로,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를 분석한 Smith(1994)는 유아들이 바깥놀이 시간 중 적개는 3%, 많개는 20% 정도를 거친 신체 놀이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여기에서 주로 나타난 행동은 유아들이 웃으

면서 쫓고 쫓기는 추적놀이의 형태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만 4, 5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숙재, 1998)에서는 유아들이 바깥놀이 시간의 6.8%를 거친 신체 놀이에 참여하였고, 관찰된 거친 신체 놀이 행동은 잡아낚거나 밀기, 도망가거나 잡기, 태권도·권투·흉내내기, 찌르거나 때리기, 뒤엉켜 바닥에 구르기, 발로 차기, 덤벼들기, 던지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거친 신체 놀이를 신체적 접촉의 유사 싸움놀이와 비 신체적 접촉의 추적놀이로 구분하여 조사한 Smith와 Connolly(1980)는 추적놀이가 유사 싸움놀이보다 약 4배 정도 더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시자, 임명희, 1998)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유아들이 참여하는 거친 신체 놀이의 유형은 비교적 유사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참여시간이나 빈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유아들이 외국 유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거친 신체 놀이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일부 연구에 근거한 결과인 만큼 우리나라 유아들의 거친 신체 놀이 참여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거친 신체 놀이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과 더불어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유아의 성에 따라 거친 신체 놀이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DiPietro, 1981; Humphreys & Smith, 1984, 1987; Pellegrini, 1989). 여러 경험적 증거들을 통해 남아가 여아보다 거친 신체 놀이에 보다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문화권 예컨대, 미국, 영국, 멕시코, 필리핀, 오키나와, 인도의 유아를 연구한 결과(DiPietro, 1981; Pellegrini, 1989)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으로써 거친 신체 놀이에서 성차가 보편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령기 여리연령대 아동의 바깥놀이를 조사한 Humphreys와 Smith(1987)는 남아가 여아보다 평균 2배 이상의 거친 신체 놀이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성차는 취학 전 연령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수행된 이시자와 임명희(1998)의 연구에서도 관찰되었다. 특히 여아의 거친 신체 놀이 행동은 주로 추적놀이 형태로 나타났으며, 남아의 거친 신체 놀이는 유사 싸움놀이와 추적놀이가 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거친 신체 놀이가 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 특히 사회성과의 관계에 주목한 학자들(Dodge & Frame, 1982; Fagot & Leinbach, 1983; Ladd, 1983)이 있다. 이들은 사회성 발달의 지표가 되는 사회적 능력에 관심을 두고 거친 신체 놀이와의 관련성을 검증코자 노력해 왔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조명한 연구들(이숙재, 1998; Coie & Kupersmith,

1983; DiPietro, 1981; Neil, 1976)과 긍정적 입장을 부각시킨 연구들(Humphreys & Smith, 1984, 1987; Pellegrini, 1988, 1989; Smith & Boulton, 1990)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거친 신체 놀이의 대부분이 공격적인 행위로 전환되어 실제 싸움으로 발전된다는 사실을 밝힌 DiPietro(1981)와 Neil(1976)은 거친 신체 놀이가 사회성 발달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우리나라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숙재(1998)의 연구에서도 거친 신체 놀이가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반면, 거친 신체 놀이에 상호적 역할수행 능력, 사회적 유연성, 자기조절 능력 등 사회적 상호작용의 성공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거친 신체 놀이가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임을 지적한 학자들(Blurton, 1976; Smith, 1994)도 있다. 특히 Pellegrini(1987, 1988)는 친사회적이며 인기 있는 유아는 상대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를 싸움이 아닌 놀이 신호로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또래와 함께 이를 즐길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공격적 유아는 상대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를 공격적 메시지로 이해하고 공격적 행동을 나타냄으로써 놀이를 싸움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학자들은 거친 신체 놀이와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혼재된 시각들은 유아교육 현장의 교사나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로 하여금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를 발달 상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공격적 행위로 간주하고 제지해야 할 것인지의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우진아, 2003)에서도 유아들의 거친 신체 놀이에 대한 교사들의 엇갈린 시각들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와 부모 모두 거친 신체 놀이의 발달적 기능에 대한 이해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거친 신체 놀이와 유아 사회성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통해 거친 신체 놀이가 갖는 발달적 가치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유치원 바깥놀이를 중심으로 만 5, 6세 유아의 놀이 행동에 대한 포괄적 관찰을 통해 전반적인 거친 신체 놀이의 참여 양상을 분석해 보고, 이와 더불어 거친 신체 놀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아의 성과 사회적 능력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바깥놀이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 참여 양상은 어떠한가?
2. 유아의 성에 따라 거친 신체 놀이에 차이가 있는가?

3.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따라 거친 신체 놀이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바깥놀이 환경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C유치원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한 B유치원을 선정한 후 두 유치원의 만 5세반 유아 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유아의 평균 연령은 69개월로 나타났고, 남녀 각각 40명씩이었다. 연구대상 유아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일반적 특성

구분	유아 수	연령	
		범위	평균
남	40	63~76개월	69개월
여	40	63~75개월	69개월
전체	80	63~76개월	69개월

연구대상 유아들이 속한 두 유치원의 바깥놀이 환경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네, 의자 등 기본 놀이시설과 뱃줄, 철봉 등 다양한 소재의 기어 오름대와 미끄럼틀이 함께 있는 복합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바깥놀이터의 지면은 두 기관 모두 모래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거친 신체 놀이가 자주 관찰되는 바깥놀이터에서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 행동을 관찰하였으며, 대상 유아의 교사가 사회적 능력을 평정하였다. 이러한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는 Humphreys와 Smith(1987)의 관찰 범주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먼저 Humphreys와 Smith(1987)의 연구를 토대로 예비관찰 도구를 구성한 후 그 가운데 용어가 모호하거나 유사한 것을 검토하였다. 그 과정을

통해 거친 신체 놀이임을 알 수 있는 표정 및 언어, 행동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맥락에 적합한 용어로 거친 신체 놀이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를 하였다. 또한 사전조사를 통해 예비관찰 범주의 조작적 정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관찰이 어렵거나 수정이 필요한 범주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밀다'와 '끌어당기다'의 범주를 통합하여 '밀고 당기기'로 수정하였으며, '때리다'와 '치다'의 범주를 '치기/찌르기'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달려들기'와 '올라타기' 행동은, 예비조사를 통해 바깥놀이에서 거의 관찰되지 않거나 유사한 행동으로 판단되어, '달려들기'로 통합·수정하였다. 그 밖에도 '장난으로 싸우다' 범주는 매우 포괄적 행동이므로 예비관찰을 통해 '팔 휘두르기'와 '넘어지기' 그리고 '발로 차는 척하기' 범주로 놀이 행동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의 범주 및 조작적 정의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2) 유아의 사회적 능력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한 도현심(1994)의 「사회적 능력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4개 문항으로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하위 영역은 대인관계 중 또래 관계에서의 적응(12문항)¹⁾, 인기/주도성(7문항)²⁾, 사회적 참여(5문항)³⁾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Varimax회전을 통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통해서도 그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이

는 총 변량의 61.9%를 설명하였다.

본 척도는 교사가 평소 관찰을 통해 대상 유아의 특성을 각 문항별로 '매우 그렇다(4점)', '대체로 그렇다(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거의 그렇지 않다(1점)'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부정적 행동 특성에 대한 문항은 역채점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적 능력 척도의 Cronbach α 는 전체 .96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 '또래관계에서의 적응' .92, '인기/주도성' .91, 그리고 '사회적 참여' .86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 및 사회적 능력을 측정할 도구에 대한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특히 예비조사에서는 관찰 도구와 사회적 능력 척도가 본 연구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도구별로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1) 예비 조사

먼저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에 대한 관찰도구의 적절성 및 관찰 시간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대상이 아닌 만 5세반 1개 학급을 대상으로 바깥놀이 활동을 캠코더로 촬영하여 관찰하였다. 그 과정을 통해 관찰 범주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전반적 논의와 함께 수정이 필요한 범주에

<표 2>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

하위 범주	조작적 정의
도망가기와 쫓기	두 명 이상의 유아들이 경쟁심 없이 함께 참여하여 쫓고 쫓기는 역할로 나누어 웃으면서 달아나거나 뒤따라가는 행동
놀리기	한 유아가 다른 유아에게 짓궂은 행동을 하거나 놀리는 행동
밀고 당기기	두 명 이상의 유아들이 웃으면서 손이나 팔, 몸을 이용해 다른 유아를 가볍게 잡아당기거나 미는 행동
치기/찌르기	손이나 팔에 힘을 주지 않고 손을 편 채로 웃으면서 다른 유아의 신체 부위를 가볍게 치거나 찌르는 행동
발로 차는 척하기	다른 유아의 신체를 향해 발로 차는 척하는 행동
팔 휘두르는 시늉하기	두 명 이상의 유아들이 신체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고 서로 팔을 뻗어 휘두르는 척하는 행동
넘어지기	두 명 이상의 유아들이 서로 끌어안고 웃으면서 바닥에 넘어지는 행동
잡기	두 명 이상의 유아들이 웃으면서 상대방의 신체나 옷을 손으로 가볍게 잡는 행동
달려들기	한 유아가 다른 유아에게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로 갑자기 달려와 안기거나 매달리는 행동
놀래기기	한 유아가 다른 유아 올래 다가가서 놀라게 하는 행동

1) 문항의 예 : 친구들과 다투지 않고 대화를 지속한다.

2) 문항의 예 : 친구들과의 놀이를 재미있게 이끌어 간다.

3) 문항의 예 :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한다.

대한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거친 신체 놀이의 관찰 범주는 기존 연구들(Humphreys & Smith, 1987; Pellegrini, 1989; Smith, 1973)이 제시한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동시에 공격적 요소가 없고 웃고 즐기는 행위 등이 포함되도록 정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맥락에 맞도록 예비관찰을 통해 범주들 가운데 행동이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것은 수정하거나 세분화하였고, 관찰되지 않는 범주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삭제하거나 다른 범주와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컨대, 관찰 범주 중 '뛰어다니기 및 도망가기'와 '쫓기'의 범주를 '도망가기와 쫓기'로 통합하였고, '소리 지르기'를 '장난으로 놀리기'로 변경하였으며, '싸움하기' 범주는 삭제하였다. 또한 '놀래기기', '달려들기', 그리고 '놀리기'의 범주를 추가하였다. 이렇게 수정·보완된 거친 신체 놀이의 범주는 아동 및 유아교육관련 전문가 3인에 의해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관찰 범주에 추가로 반영하였다.

그 밖에도 관찰 시간 그리고 간격 및 회수 등을 결정하였는데, 관찰 시간은 유치원 바깥놀이 시간으로 하였으며, 관찰 간격은 예비조사를 통해 20초에서 10초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관찰시 사용될 기록용지는 바깥놀이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구성된 관찰 범주를 토대로 관찰자 훈련을 실시하고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관찰자는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5년 이상의 현장 경험과 관찰 경험을 가진 보조연구원과 연구자였다. 관찰자 훈련은 먼저 하위 범주의 조작적 정의와 구체적 행동의 예를 충분히 숙지하였고, 관찰 간격 및 기록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그런 다음 유아의 바깥놀이를 촬영한 120분짜리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하여 3일간 관찰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관찰 후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논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최종적으로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가 녹화된 20분짜리 비디오테이프를 두 명의 관찰자가 동시에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 Cohen의 Kappa 계수는 .78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대상이 아닌 타 기관의 교사 5인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문항의 적합성과 교사 이해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서술 중 '이 유아는~'이라는 반복 문구를 '관찰 대상 어린이 는~'으로 수정하였다.

2) 본 조사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대상 유아의

답임교사에게 질문지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회적 능력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 작성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질문지 회수는 연구자가 직접 하였다. 질문지 회수율은 100%였다.

거친 신체 놀이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바깥놀이가 실시되지 않은 날을 제외한 약 10주 동안 대상 유아들의 바깥놀이 행동을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비디오 촬영은 대상 유아 3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유아에게 번호표를 단 후 10분씩 연속 촬영하였으며, 하루에 평균 2, 3 명의 유아를 촬영하였다. 유아 1인당 10분씩 2회, 총 20분을 촬영하여 전체 80명 유아에 대해 총 1,600분 분량의 바깥놀이 행동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유아의 바깥놀이 행동은 시간표집법을 이용하여 10초 단위로 유아 1인당 600초(10초×60회)를 2회 반복하여 총 120회 관찰하였고, 관찰 시간은 전체 20분(10초×120회)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원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유아들이 바깥놀이에서 보이는 거친 신체 놀이의 참여 형태는 거친 신체 놀이의 총 빈도와 함께 하위 범주별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의 관찰치는 시간표집에 의해 빈도로 측정되었으나, 각 측정치가 독립적이며 총 빈도의 범위가 넓고 연속적 분포를 가정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점수화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두 번째 연구문제인 성에 따른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에 대한 분석은 성별로 거친 신체 놀이의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점수화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따른 거친 신체 놀이의 차이 검증을 위하여 우선 연구대상 유아들의 사회적 능력 점수의 분포를 점검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본 연구대상 유아들의 사회적 능력 점수가 대체로 정상분포에 근접함을 확인하였고, 사회적 능력 총점에 따라 상($n=27$), 중($n=27$), 하($n=26$) 집단을 나누었다. 그런 다음 집단별 거친 신체 놀이의 전체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하위 범주별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각각 산출하였다. 앞서 두 번째 연구문제의 분석 결과 성차가 유의하였으므로 성에 따른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따라 거친 신체 놀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성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바깥놀이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 참여 양상

유아가 참여하는 거친 신체 놀이의 일반적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만 5, 6세 유아 80명을 대상으로 각각 총 120회의 바깥놀이 행동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총 9,600회의 행동이 수집되었으며, 전체 관찰행동의 빈도 및 백분율 그리고 거친 신체 놀이의 전체 빈도(2,458회)에 대한 범주별 백분율을 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연구대상 유아들이 보인 바깥놀이 행동 전체의 25.6%가 거친 신체 놀이에 해당되었으며 74.4%는 거친 신체 놀이가 아닌 기타 행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친 신체 놀이의 전체 빈도(2,458회)에 대한 하위 범주별 빈도 및 백분율을 통해 유아들이 참여하는 거친 신체 놀이의 형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친 신체 놀이 하위 범주들 가운데 '도망가기와 쫓기'가 1,458회(59.3%)로 유아들이 나타낸 거친 신체 놀이 중 절반이 넘는 행동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밀고 당기기' 269회(10.9%), '잡기' 207회(8.4%), '달려들기' 175회(7.1%), '놀리기' 131회(5.3%), '팔 휘두르는 시늉하기' 85회(3.5%), '넘어지기' 43회(1.7%), '놀래기기' 34회(1.4%), '치기/찌르기' 33회(1.3%), '발로 차는 척하기' 23회(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들이 보이는 거친 신체 놀이 중 '밀고 당기기', '발로 차는 척하기', '팔 휘두

르는 시늉하기', '치기 및 찌르기', '넘어지기', '잡기', '달려들기'와 같은 유사 싸움놀이의 형태보다는 '도망가기와 쫓기'와 같은 추적놀이 형태의 행동이 거친 신체 놀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에 따른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

유아의 성에 따라 거친 신체 놀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성에 따른 거친 신체 놀이 행동의 평균 빈도와 표준편차를 전체 및 하위 범주별로 산출하고 t검증을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깥놀이에서 거친 신체 놀이에 참여하는 전체 빈도 평균은 남아($M=44.10$)와 여아($M=17.3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8.47, p<.001$). 즉, 전반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거친 신체 놀이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범주별로 보면, 거친 신체 놀이의 모든 관찰 범주에서 성에 따른 빈도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남아는 여아보다 '도망가기와 쫓기'($M=24.68$ vs $M=11.78$; $t=6.82, p<.001$), '놀리기'($M=2.43$ vs $M=0.84$; $t=3.34, p<.01$), '밀고 당기기'($M=5.8$ vs $M=0.93$; $t=5.89, p<.001$), '발로 차는 척하기'($M=0.48$ vs $M=0.1$; $t=2.48, p<.05$), '팔 휘두르는 시늉하기'($M=2.05$ vs $M=0.07$; $t=4.87, p<.001$), '치기/찌르기'($M=0.72$ vs $M=0.1$; $t=3.66, p<.001$), '넘어지기'($M=1.02$ vs $M=0.05$; $t=4.18, p<.001$), '잡기'($M=3.55$ vs $M=1.63$; $t=4.01, p<.001$), '달려들기'($M=3.22$ vs $M=1.15$; $t=4.57, p<.001$)의 행동을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친 신체 놀이 중 여

<표 3>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에 대한 빈도 및 백분율

($N=80$)

구분	범주	빈도(회)	백분율(%)	
			관찰 행동	거친 신체 놀이
거친 신체 놀이	도망가기와 쫓기	1,458	15.19	59.32
	놀리기	131	1.36	5.33
	밀고 당기기	269	2.80	10.94
	발로 차는 척하기	23	0.24	0.94
	팔 휘두르는 시늉하기	85	0.89	3.46
	치기/찌르기	33	0.34	1.34
	넘어지기	43	0.45	1.75
	잡기	207	2.16	8.42
	달려들기	175	1.82	7.12
	놀래기기	34	0.35	1.38
소계		2,458	25.6	100.0
기타행동 (거친 신체 놀이가 아닌 행동)		7,142	74.4	
관찰 총계		9,600	100.0	

<표 4> 성에 따른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에 대한 검증

(N=80)

거친 신체 놀이 \ 성별 집단	남자(n=40) 평균(표준편차)	여자(n=40) 평균(표준편차)	전체 평균 (표준편차)	t
도망가기와 쫓기	24.68 (8.89)	11.78 (8.0)	18.23 (10.62)	6.82***
놀리기	2.43 (2.75)	0.84 (1.14)	1.63 (2.24)	3.34**
말고 당기기	5.8 (5.01)	0.93 (1.49)	3.36 (4.42)	5.89***
발로 차는 척하기	0.48 (0.88)	0.1 (0.38)	0.29 (0.7)	2.48*
팔 휘두르는 시늉하기	2.05 (2.55)	0.07 (0.27)	1.06 (2.06)	4.87***
치기/찌르기	0.72 (1.04)	0.1 (0.30)	0.41 (0.82)	3.66***
넘어지기	1.02 (1.46)	0.05 (0.22)	0.54 (1.15)	4.18***
잡기	3.55 (2.44)	1.63 (1.80)	2.59 (2.34)	4.01***
달려들기	3.22 (2.60)	1.15 (1.39)	2.19 (2.32)	4.57***
놀래키기	0.15 (0.48)	0.7 (1.0)	0.43 (0.82)	-3.15**
전체	44.10 (15.88)	17.35 (12.12)	30.73 (19.45)	8.47***

*p<.05, **p<.01, ***p<.001

이는 남아보다 '놀래키기'($M=0.15$ vs $M=0.7$; $t=-3.15$, $p<.01$)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능력에 따른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

연구문제 3번의 결과 분석에 앞서 대상 유아들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점수 분포를 확인한 후 총점에 따라 상, 중, 하 집단을 나누었다. 이에 따른 상, 중, 하 집단 유아들의 사회적 능력의 일반적 경향은 다음과 같다. 상 집단에 속하는 유아들의 사회적 능력 총점의 범위는 76~96점이었으며, 중 집단 및 하 집단은 각각 64~74점과 48~63점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따른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한편,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따라 거친 신체 놀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능력에 따른 상, 중, 하 집단의 거친 신체 놀이에 대한 빈도 평균치를 이용하여 전체 및 하위 범주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 때 연구문제 2번의 결과에서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성에 따른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따라 거친 신체 놀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유아의 성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에 따른 효과를 제거한 후에도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따라 거친 신체 놀이의 전체 및 일부 하위 범주에서 집단차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거친 신체 놀이의 전체 평균 빈도에서 집단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8.34$, $p<.01$), 하위 범주에서는 '도망가기와 쫓기'($F=10.31$, $p<.001$), '치기/찌르기'($F=3.80$, $p<.05$), '잡기'($F=3.78$, $p<.05$), '달려들기'($F=4.59$, $p<.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에 따른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유아의 전반적인 거친 신체 놀이에서 사회적 능력에 따른 상, 중, 하 집단의 순으로 빈도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거친 신체 놀이의 하위 범주 중 '도망가기와 쫓기'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 밖에도 거친 신체 놀이의 하위 범주 중 '잡기'와 '달려들기'에서 사회적 능력에 따른 상 집단의 빈도 평균이 하 집단의 빈도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치기/찌르기'에서는 중 집단의 빈도 평균이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빈도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거친 신체 놀이는, 유아의 성을 통

<표 5>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따른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

(N=80)

구분 \ 사회적 능력 집단	상(n=27) M(SD)	중(n=27) M(SD)	하(n=26) M(SD)	전체(n=80) M(SD)
또래관계 간 적응	42.2(2.8)	34.6(2.0)	29.1(2.3)	35.4(5.9)
인기 및 주도성	24.1(2.7)	20.6(1.5)	16.5(1.8)	20.4(3.8)
사회적 참여	16.7(1.8)	13.9(1.5)	11.6(2.0)	14.1(2.8)
총점	83.0(6.5)	69.1(3.3)	57.2(3.7)	69.9(11.7)

<표 6> 사회적 능력에 따른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의 차이

(N=80)

거친 신체 놀이 \ 사회적 능력 집단	상(n=27) ^a M(SD)	중(n=27) ^b M(SD)	하(n=26) ^c M(SD)	F	사후검증
도망가기와 쫓기	26.0 (8.7)	17.5 (8.6)	10.9 (8.9)	10.31***	a>b>c
뛰리기	2.3 (3.2)	1.6 (1.5)	1.0 (1.5)	.55	
밀고 당기기	5.2 (4.3)	3.4 (5.3)	1.5 (2.4)	.84	
발로 차는 척하기	0.3 (0.7)	0.4 (0.8)	0.2 (0.5)	.83	
팔 휘두르는 시늉하기	1.5 (2.7)	1.2 (2.0)	0.4 (0.8)	.38	
치기/찌르기	0.4 (0.8)	0.7 (1.1)	0.1 (0.3)	3.80*	b>a,c
넘어지기	0.8 (1.5)	0.6 (1.2)	0.2 (0.5)	.30	
잡기	3.8 (2.1)	2.5 (2.6)	1.4 (1.7)	3.78*	a>c
달려들기	3.5 (2.7)	2.1 (2.0)	0.9 (1.2)	4.59*	a>c
놀래키기	0.2 (0.6)	0.6 (1.0)	0.5 (0.8)	.94	
전체	43.9(15.6)	30.7(18.7)	13.9 (2.7)	8.34**	a>b>c

^ap<.05, ^{**}p<.01, ^{***}p<.001

제한 후에도, 사회적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사회적 능력이 높은 유아들이 낮은 유아들보다 거친 신체 놀이에 비교적 더 많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치원 바깥놀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만 5, 6세 유아의 전반적인 거친 신체 놀이의 참여 양상을 알아보고, 유아의 성 및 사회적 능력에 따라 거친 신체 놀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유아들의 바깥놀이 관찰 행동 중 25.6%가 거친 신체 놀이로 나타났다. 이는 바깥 놀이에서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 행동이 적계는 6.8%, 많게는 20%가 나타난 선형 연구들(이숙재, 1998; Smith, 1994)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높은 참여율로 이는 몇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유아들은 거친 신체 놀이가 일어날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이를 즐기며(Smith & Connolly, 1980), 딱딱한 장소보다는 모래나 잔디 등 부드러운 바닥에서 거친 신체 놀이에 더 많이 참여한다(Pellegrini, 1989)는 주장에 근거하여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 유아들이 속한 기관의 바깥놀이 환경은 유아 1인당 3.5~6.9평으로 유아들이 마음껏 뛰놀고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연구대상 유아들의 거친 신체 놀이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연구대상 유아들이 속한 기관은 교사 대 유아 비

율이 타 기관에 비해 낮은 편(1:15~17)이라 볼 수 있다. 거친 신체 놀이가 유아들 간의 긍정적 놀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사 역할의 중요성(Boyd, 1997)에 근거해 볼 때 적절한 교사 대 유아 비율은 그 선형 조건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과 더불어 유아들이 거친 신체 놀이에 참여할 때 교사가 가까이에서 이를 관찰하고 적절하게 상호작용해 줌으로써 유아들 간의 공격적 요소를 줄이고 놀이 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거친 신체 놀이를 부정적 놀이로 간주하여 금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교사의 인식이나 태도가 영향을 준 결과라고도 여겨진다. 따라서 마음껏 달리고, 뛰굴 수 있으며, 거친 신체 놀이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환경과 더불어 거친 신체 놀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안전하고 즐겁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교사의 인식 및 태도가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 참여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 형태에서 '도망가기와 쫓기'의 추적놀이가 '밀고 당기기', '발로 차는 척하기', '팔 휘두르는 시늉하기', '치기/찌르기', '넘어지기', '잡기', '갑자기 달려들기' 등의 유사 싸움놀이보다 두 배 정도 더 빈번히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들이 웃으며 쫓고 쫓기는 추적놀이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난 선형 연구들(이숙재, 1998; 이시자, 임명희, 1998; Smith & Connolly, 1980)과 일치하고 있다. 즉, 성인의 관점에서 보면 싸움으로 보이는 행동도 유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즐거운 놀이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유아는 자신을 위협하는 공격적 행동과 거친 신체 놀이를 구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유아는 실제 공격적인 싸움보다는 공격적 요소가 배제되고 놀이의 요소를 띤 행동을 즐긴다

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거친 신체 놀이는 유아의 바깥 놀이에서는 간과될 수 없는 놀이라 여겨지며, 이에 여러 유아들이 함께 참여하는 긍정적이며 사회적인 놀이가 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로 유아의 성에 따른 거친 신체 놀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성에 따라 거친 신체 놀이의 차이를 보였다. 즉 거친 신체 놀이는 성차를 반영하는 놀이라고 간주되며, 다양한 문화권에서 실시된 연구들 (Humphreys & Smith, 1987; Pellegrini, 1989; Smith & Connolly, 1980)도 본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거친 신체 놀이에 참여하는 전체 빈도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2배 이상 더 많게 나타났으며, '놀래기기'를 제외한 모든 하위 범주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평균 2배 이상 거친 신체 놀이에 더 많이 참여하였다는 Humphreys와 Smith(198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신체적 접촉이 많은 거친 신체 놀이와 접촉이 없는 거친 신체 놀이 모든 범주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었으며, 여아는 비교적 접촉이 적은 '도망가기와 쫓기', '놀래기기' 등의 신체적 접촉이 적은 놀이에 참여하였다. 이에 거친 신체 놀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호하는 놀이라고 여겨지며, 이는 몇 가지 관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첫째, 생물학적 원인(Pellegrini, 1988)으로 남아와 여아의 신체 활동의 차이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남아는 여아에 비해 생물학적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운동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는 놀이를 선호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아에 비해 활발한 거친 신체 놀이를 자주 하게 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둘째, 남아가 거친 놀이를 할 때 부모나 교사들은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여아가 거친 신체 놀이를 할 때는 금지하거나 부정적인 강화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성인의 차별적 반응에 의해 남아와 여아의 행동에 차이를 보이게 되는 사회적 인식 및 환경적 요인의 영향(Humphreys & Smith, 1984)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거친 신체 놀이는 성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고 추측된다.

한편 거친 신체 놀이의 하위 범주 중 '놀래기기'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이 참여하였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남아와 여아가 참여하는 거친 신체 놀이의 유형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아의 경우 물리적 힘을 이용한 도구적 공격성이 많이 나타나는 반면, 여아는 언어 및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McNeilly-Choque, Hart, Robinson, Nelson, & Olsen, 1996). 이에 근거해 볼 때 본 연구대상 여아들은 신체적 접촉이 많은 거친 신체 놀이 보다는 신체적 접촉이

없거나 언어화된 거친 신체 놀이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세 번째 연구문제로 사회적 능력에 따른 거친 신체 놀이를 분석한 결과, 성에 따른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의 전체 및 일부 하위 범주에서 사회적 능력에 따른 집단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능력이 높은 집단에 속한 유아들의 거친 신체 놀이 전체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간 수준의 집단, 낮은 수준의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범주에서는 '도망가기와 쫓기'가 앞서 전체 빈도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며, '잡기'와 '달려들기'에서는 사회적 능력이 높은 수준의 집단에 속한 유아들이 낮은 수준의 유아들보다 이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친 신체 놀이와 사회성 발달의 긍정적 관계를 제시한 학자들(Humphreys & Smith, 1987; Smith & Boulton, 1990; Pellegrini, 1988, 1989)의 의견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거친 신체 놀이에 적극적 그리고 성공적으로 참여하는 유아가 또래집단에 더 잘 적응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뿐 아니라 인기가 있으며, 집단을 이끄는 리더십과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Fagot과 Leinbach(1983)는 거친 신체 놀이를 통해 유아들이 사회적 문제해결의 기술을 배우면서 사회적 능력을 키우고 또래와 우정을 쌓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해 볼 때 본 연구대상 유아들도 거친 신체 놀이를 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통해 문제해결 및 관련 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받았을 것이며, 친밀한 친구관계를 발달시키고 유지해왔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에 거친 신체 놀이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긍정적 역할을 담당했으리라 여겨진다.

한편 본 연구는 거친 신체 놀이가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우리나라 연구(이숙재, 1998)와는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거친 신체 놀이에 대한 교사의 태도 및 지도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숙재(1998)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가 바깥놀이 행동의 6.8%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25.6%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바깥놀이 환경에 의한 차이 외에도 교사가 거친 신체 놀이를 얼마만큼 허용하는지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거친 신체 놀이의 참여 빈도가 높다는 것은 교사가 거친 신체 놀이의 발달적 가치를 인정하고 허용하며, 이를 사회적 지도의 맥락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반면, 유아의 참여 빈도가 낮다는 것은 교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결과라 여겨지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지도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줄어듦을 시사한다. 따라서 거친 신체 놀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맥락에서 교사의 긍정적 지도를 받을 확률이 큰 본 연

구대상의 유아들에게서 사회적 능력과 거친 신체 놀이와의 정적 관련성이 발생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지금까지에 기초하여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시사점 및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친 신체 놀이를 주제로 하여 유아의 참여 양상과 함께 성 및 사회적 능력에 따른 차이를 조명하였다. 이로써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의 특징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거친 신체 놀이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와 달리, 유아의 사회적 관계에서 거친 신체 놀이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거친 신체 놀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기초를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간 교사나 부모가 인식하는 거친 신체 놀이는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거친 신체 놀이가 유아들이 즐겨하는 놀이의 일부이며, 공격적 행위와 구분될 수 있고, 유아의 또래관계 및 집단 내 적응 그리고 우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거친 신체 놀이의 긍정적 기능을 부각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셋째, 거친 신체 놀이에서 성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성공적인 거친 신체 놀이는 유아에게 자신감, 정서적인 안정감, 독립심, 자기 통제감을 증진시키며, 사회적 유능성을 향상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사와 부모는 어린이의 거친 신체 놀이가 친구들과의 긍정적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와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유아들 간의 공격적 요소를 줄이고 협동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유사한 바깥놀이 환경을 갖고 있는 서울과 인천의 두 유치원에 속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 일반화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연령과 다양한 환경의 많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 측정을 위해 교사가 평정하는 방법에만 의존하는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보다 다양한 정보원 예컨대, 부모나 또래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해 보는 것도 거친 신체 놀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바깥놀이에서 나타나는 거친 신체 놀이는 발달적 가치를 지닌 유아 놀이의 일부이며, 유아의 성 및 사회적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거친 신체 놀이

가 유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유아에게 적합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거친 신체 놀이의 관찰 및 지도가 가능한 적절한 교사 대 유아 비율을 확보하며, 이러한 놀 이를 긍정적 자세로 수용하여 교육적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교사의 인식과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제어 :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 성, 사회적 능력

참 고 문 헌

- 도현심 (1994). Social competence of kindergarteners and sixth graders: Its relationships to parental attention, parental protectiveness, the children's sex, and their birth category.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재 (1998). 어린이의 거친 신체 놀이와 사회적 능력 연구. *아동학회지*, 19, 131-140.
- 이시자, 임명희 (1998). Rough-and-tumble 놀이에 관한 연구: 6세 아동의 유치원 바깥놀이 중심으로. 서울: 삼성복지재단 연구보고서.
- 이정숙 (2002). 어린이들의 거친 신체 놀이. *산학연구소논문집(기전여대)*, 22, 95-106.
- 우진아 (2003).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놀이 양상.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Blurton, J. N. (1976). Rough-and-tumble play among nursery school children. In J. A. Jolly & K. Sylva (Eds.), *Play: Its role in development and evolution* (pp. 352-363). New York: Basic Books.
- Boyd, B. J. (1997). Teacher response to superhero play: To ban or not to ban? *Childhood Education*, 74, 23-28.
- Coie, J. D., & Kupersmidt, J. B. (1983). A behavioral analysis of emerging social status in boys and girls groups. *Child Development*, 54, 1400-1416.
- DiPietro, J. A. (1981). Rough and tumble play: A function of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17, 50-58.
- Dodge, K. A., & Frame, C. L. (1982). Social cognitive biases and deficits in aggressive boys. *Child Development*, 53, 620-635.
- Fagot, B., & Leinbach, M. (1983). Play style in early childhood. In M. Liss (Ed.), *Sex Roles and Children's Play* (pp. 93-116). New York: Academic.
- Humphreys, A. P., & Smith, P. K. (1984). Rough-and-tumble in preschool and playground. In P. K. Smith (Ed.), *Play and Humans* (pp. 241-266). London: Basil Blackwell.

- Humpherys, A. P., & Smith, P. K. (1987). Rough-and-tumble, friendship, and dominance in schoolchildren: Evidence for continuity and change with age. *Child Development*, 58, 201-212.
- Isenberg, J., & Quisenberry, N. L. (1998). Play: A necessity for all children. *Childhood Education*, 64, 138-145.
- Ladd, G. (1983). Social networks of popular, average, and rejected children in school settings. *Merrill-Palmer Quarterly*, 29, 283-307.
- McNeilly-Choque, M., Hart, C., Robinson, C., Nelson, L., & Olsen, S. (1996).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on the playground: Correspondence among different informants.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1, 47-67.
- Neil, S. (1976).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fighting in twelve to thirteen year old pre-adolescent boy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7, 213-220.
- Pellegrini, A. D. (1987). Rough-and-tumble play, development and educational significance. *Educational Psychologist*, 22, 23-43.
- Pellegrini, A. D. (1988). Elementary school children's rough-and-tumble play and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2-806.
- Pellegrini, A. D. (1989). Elementary school children's rough-and-tumble pla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4, 245-260.
- Smith, P. K. (1973). Temporal clusters and individual difference in the behavior of preschool children. In R. Michael & J. Crook (Eds.), *Comparative ecology and the behavior of primates* (pp. 752-798). London: Academic Press.
- Smith, P. K. (1994). The war play debate. In J. H. Goldstein (Ed.), *Toys, play, and child development* (pp. 67-8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P. K., & Boulton, M. (1990). Rough-and-tumble play, aggression and dominance: Perception and behavior in children's encounters. *Human Development*, 33, 271-282.
- Smith, P. K., & Connolly, K. (1980). *The ecology of preschool behavio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8. 2 접수; 2007. 9. 27 채택)